

기획



‘김정선’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통통 튀는 네딸맘 ‘엘시스테마’는 곧 나”

▲네딸맘
인터뷰의 나의 별칭은 ‘네딸맘’이다. 두 번째 출산에서 세 명의 딸들을 동시에 얻게 되면서 네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나를 ‘세쌍둥이 엄마’라고 부른다. 나에게 있어 희, 호,하,송 네 딸들은 종합비타민과 같은 존재이며 네 딸 엄마로서의 책임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과 같은 존재들이다.

▲럭비공
이런 저런 일들을 잘 저지르는 나를 보고 마치 어디로 될 지 모르는 ‘럭비공’같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별칭이 참 마음에 든다.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해 옮기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 실패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나의 생활신조이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움직였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문들이 열렸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끊임없이 도전하려 한다.

▲엘시스테마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앞으로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준 길잡이와 같은 키워드이다. 처음 ‘엘시스테마’는 악기교육의 기회를 받기 힘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나눠주고 가르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의미였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마냥 우쭐해 했던 것도 같다. 2년의 기간이 흐른 지금, ‘엘시스테마’의 정신 안에는 음악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와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고 절제하고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람 공동체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

- ▲김정선은
• 1972년 생
• 전남대 음악학과 학사, 중앙대 음악교육학과 석사, 한양대 음악인문학 박사
• 희망나무 영 오케스트라 단장
•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본부 수석강사

“음악으로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꿈꿔요”



(4) 희망나무 영오케스트라 단장 김정선

다문화·일반 아이들로 연주팀 구성
“서로 이해하며 어울리는 모습 뿌듯”
‘꿈오넷’ 수석강사로 또다른 도전 시작

“음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준 베네수엘라의 교육 시스템 ‘엘시스테마’는 지난해 문화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였다. 광주를 비롯, 전국 곳곳에서 ‘한국판 엘시스테마’, ‘광주판 엘시스테마’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케스트라가 창단됐다. 1년 단위 문화에 숭교육사업 중에도 ‘엘시스테마’ 간판을 단 프로젝트가 많았다.

희망나무 영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김정선(40)씨를 처음 취재한 게 지난 2010년 5월이었다. 지금처럼 ‘엘시스테마’가 대세가 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당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를 갖 만든 상태였다.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씨는 중앙대에서 음악교육 석사, 한양대에서 음악이론 박사 과정을 마쳤다.

희망나무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로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참여하는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게 되면서 부터다. 네 딸이 엄마이기도 한 김씨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볼까 했어요. 그러다 이왕 저지를 일, 좀 더 규모를 키워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싶었죠. 모임을 만들 때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만 팀을 짜는 거 보다는 일반 가정 아이들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차피 함께 살아갈 세상인데,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

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단체 (사)희망나무의 도움으로 악기를 마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레슨을 맡아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희망나무영오케스트라는 튼튼히 뿌리를 내렸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무엇보다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다. 바이올린을 배우던 남매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엄마가 없으면 울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바이올린 실력도 많이 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함께 합주를 하면서 ‘어우러지는’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눈뜨게 되는 걸 보면 뿌듯하다.

장기연주회를 앞두고는 다들 바빠 긴장하기도 했다. 리허설 때 소리가 맞지 않아 애를 끊었지만 정작 본 공연에서는 보란듯이 집중해서 멋진 연주를 선보여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희망나무 영오케스트라는 율해부터 비올라와 클라리넷, 오보에 등으로 악기를 확대하고 연주회도 좀 더 자주 가질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한국형 엘시스테마’ 사업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발족한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본부’(이하 ‘꿈오넷’) 수석강사로 뽑힌 것이다. 김씨는 서류전형과 면접, 국내연수 등 4차례 관문을 뚫고 ‘꿈오넷 수석강사’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뽑힌 8명의 강사와 떠난 미국 마이애미 연수는 김씨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줬고, 앞으로의 활동에 관한 등불을 밝혀줬다. “마이애미 연수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엘시스테마’가 단지 악기 교

육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철학을 공유하고, 강사로서 자질을 많이 키워나가야 한다는 걸 느꼈죠. 무엇보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음악을 매개로 사람 관계를 느끼면서 따뜻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란 걸 느꼈습니다.”

‘꿈오넷 수석강사’가 되면서 그녀의 꿈은 더 커졌다. 광주·전남에 많은 오케스트라가 생기고 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커졌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단체들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오케스트라간 네트워크를 탄탄히 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음악 안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국 연변에도 오케스트라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문화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연주를 배웠던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고향인 연변에 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악의 힘을 공유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지금 또 다른 ‘즐거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날, 수백명의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넓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멋진 모습, 그 음악에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글=김미기기자 kemikim@/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정선씨가 단장과 지휘를 맡고 있는 ‘희망나무 영오케스트라’ 연주 모습.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countries like China, Japan, USA, Europe, and New Zealand. Includes pric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

서울시 중구대동 88번지 5층 8호 ● 서울시 중구청 동북동 433호 ● 고양시 고양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인천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대전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부산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대구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광주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대전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부산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대구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 ● 광주광역시 중구 남동동 109번지 101호 (신원빌딩) 501호